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지경부, 신뢰성보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

- 지식경제부는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'03년부터 '부품소재 신뢰성보험'을 도입·운영하였으며, 지난 7일에는 가입대상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'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'을 발표함.
 - 신뢰성보험이란 새로 개발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것이며, 제조물 보증책임과 회수비용, 제조물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보증하는 손해보험제도임.
 - 이는 민간보험사의 PL보험(Product Liability insurance: 제조물배상책임보험)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데다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임.
- 이번 수립된 방안에 따르면, 앞으로는 신뢰성평가센터의 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모든 개발 부품소재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음.
 -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% 이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약 3,700여 업체에 달하고 있어 간단한 심사절차만으로 전문기업 확인이 가능해 사실상 가입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임.
 - 보험료는 민간 PL보험 대비 50%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, 단체보험 할인율은 최대 30%, 중소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은 20% 등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함.
 -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도 현재 50억에서 최대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.
- 지식경제부는 이번 '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'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을 유도는 데 목적이 있으며,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.
 - 또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업계를 대상으로 신뢰성보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보험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.

(“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, 신뢰성보험 가입 허용”,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, 4/7)